

선행사내포생략 구문에 대한 통합적 접근

손근원

(한양대학교)

Sohn, Keun-Won. 1999. A compositional Approach to Antecedent Contained Deletion. *Linguistics*, 7-1, 51-70. This paper discusses a special type of antecedent contained deletion (ACD) construction containing negative polarity items. This construction poses a nontrivial problem for any type of analyses proposed so far since there are two separate requirements that seem to be hard to reconcile: the requirement for resolving the infinite regress problem and the requirement for NPI licensing. After critically reviewing the existing analyses on the construction in concern, I propose that this construction can best be accounted for by Lasnik's (1993, 1995, 1999) compositional approach, (Hanyang University)

1. 서문

선행사내포생략(Antecedent Contained Deletion)구문은 근래에 들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 구문 자체가 흥미롭기도 하거니와 이와 더불어 90년대 초반 최소주의에서의 주된 주장인 목적어 일치소라는 기능범주의 존재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한 최소주의 이론 내에서 그 존재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양화사 인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구문에서의 논점은 어떻게 끝없는 순환(infinite regress)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복사(또는 삭제)영역을 창출해 내는가 하는 것이다. 선행사내포생략(선내생) 구문을 보기에 앞서 먼저 다음의 동사구 생략구문을 보도록 하자.

- (1) a. Dulles suspected Philby, and Angleton did, too.
- b. Dulles suspected Philby, and Angleton suspected Philby too.
- c. Dulles [_{VP} suspected Philby], and Angleton did [_{VP} e] too.
- d. Dulles [_{VP} suspected Philby], and Angleton did [_{VP} suspect Philby] too.

(1a)는 (1b)와 동일한 해석을 지니는데 이를 위해 학자들은 (1a)에 (1c)에서와 같이 영 동사구(null VP)가 있는 구조를 부여하고, (1d)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논리형태부(LF)에서 선행하는 동사구의 내용을 이 영 동사구에 복사함으로써 올바른 해석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¹⁾

그러면 이제 다음의 선내생 구문을 보도록 하자.

- (2) a. Dulles suspected everyone Angleton did.
 b. Dulles suspected everyone Angleton suspected.
 c. Dulles [_{VP} suspected everyone (that) Angleton did [_{VP} e]]
 d. Dulles suspected everyone (that) Angleton did [_{VP} suspect everyone (that) Angleton did [_{VP} e]]

(2a)는 (2b)처럼 해석되는데 문제는 선내생 구문에서는 일반 동사구 생략에서와 달리 선행하는 동사구를 단순히 복사하는 것만으로 올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2c)에서 종속절의 동사구를 채우기 위해 주절의 동사구를 복사한다면 (2d)에서와 같이 복사된 동사구내에 또 다시 영 동사구가 포함되게 되고 이 동사구를 채우기 위해 또 다시 복사를 해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낳게 되어 결국 끝없는 순환(infinite regress)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선행사가 복사(또는 삭제) 영역에 포함된 듯이 보이는 생략구문이라 하여 이에 선행사내포생략 구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 구문에서 무한순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영 동사구를 복사영역의 바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May (1985)는 이것이 양화사 인상(QR)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제안하고 Baltin (1987)은 외치(extraposi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제안한다. Hornstein (1994)은 이 두 가지 접근법에 다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격을 점검하기 위한 논항이동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주장을 편다. 마지막으로 Lasnik (1993,1995,1999)은 논항이동 분석과 외치 분석을 견해야만 선내생 구문의 여러 자료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는 통합적 분석을 제시한다.

1. 물론 동일한 설명을 삭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삭제를 통한 설명에서는 (1a)가 아래 (i)에서처럼 기저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생성되고 음성형태부에서 동일성 조건 하에 삭제가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인지하는 표면형태인 *Dulles suspected Philby, and Angleton did, too*가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i) Dulles [_{VP} suspected Philby], and Angleton [suspected Philby], too.

이 글에서는 소위 부정대극표현(negative polarity items)이 선내생 구문에 포함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gbayani (1996)와 Merchant (1998)는 이러한 구문이 양화사인상 분석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박 명관 (1998)은 이것이 Lasnik의 통합적 분석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 부정대극표현과 선내생 구문의 결합이 기본적으로 통합적 분석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으로써 박 명관과 같은 입장을 취하나 박 명관의 분석에서 간과되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양화사인상 분석의 문제점을 다른 각도에서 부각시키고 새로운 자료들을 통해 통합적 분석의 논거를 강화할 것이다.

2. 이전 분석들

2.1 양화사 인상 분석

May (1985)는 (2a)의 문장에서 목적어인 양화사가 수식절과 함께 논리형 태부에서 양화사 인상을 겪으면 다음의 구조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3) [_{IP} [everyone that Angleton did [_{VP} e]_i]; [_{IP} Dulles [_{VP} suspected t_i]]]
 ↑ _____

이 구조에서 영 동사구는 이제 더 이상 주절 동사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절 동사구를 복사한다고 하더라도 무한순환의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May (1985)는 이 선내생 구문이 양화사 인상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 준다고 주장한다.

2.2 외치 분석

Baltin (1987)은 선내생 구문이 양화사 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치(extraposition)에 의거하여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2a)는 가시통사부(overt syntax)에서 (4)의 구조를 지닌다.

(4) [_{IP} Dulles [_{VP} [_{VP} suspected everyone] [_{CP} Angleton did [_{VP} e]]] (SS)
 _____ ↑

수식절 [*CP Angleton did [VP e]*]가 (4)에서처럼 외치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영 동사구는 주절 동사구 안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논리형태부에서 양화사가 인상되고 난 후 [*VP suspected t*]만을 복사함으로써 올바른 해석에 이르게 된다.

2.3 논항이동 분석

Hornstein (1994)은 무한순환의 문제가 양화사 인상이나 외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형태부에서 격 점검을 위해 목적어가 영 동사구를 이끌고 일치소구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해 감으로써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2a)는 논리형태부에서 (5)의 구조를 지닌다.

(5) Dulles [_{AGROp} [NP everyone Angleton did [_{VP} e]]i AGR [_{VP} suspected ti]]
 ↑ _____|

이 구조에서 일치소구 지정어 자리에 있는 영 동사구에 주절 동사구 [*VP suspected ti*]를 복사하면 적절한 해석에 도달하게 된다.

2.4 통합적 분석

Lasnik (1993,1995,1999)은 일련의 논문들에서 외치와 논항이동을 동시에 가정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접근법은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차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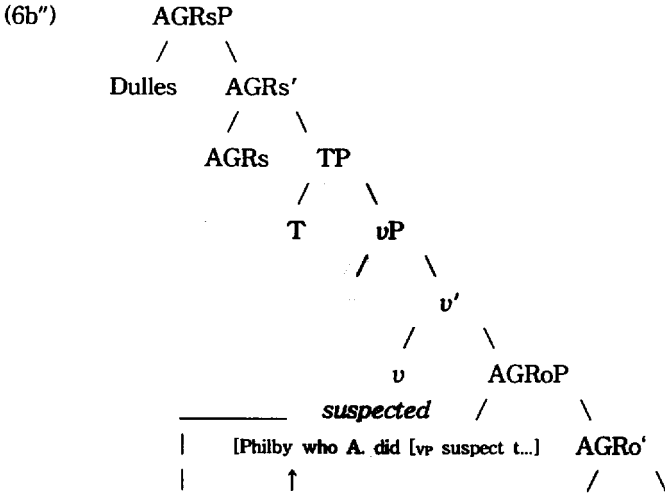
2. May는 양화사인상 분석을 주장하면서 (6b)와 유사한 (i)과 같은 예문을 그 증거로 삼았다. 즉, *Philby*는 양화사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형태부에서 인상을 겪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무한 순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이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Wyngaerd & Zwart* (1991)가 관찰했듯이 (ii)와 같이 부정어나 부사를 첨가하면 문법성이 훨씬 향상된다. 따라서 (i)의 비문법성은 무한순환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양화사인상 분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료로 판명된다.

- (i) *Dulles suspected Philby, who Angleton did
- (ii) a. ?Dulles suspected Philby, who Angleton did not.

- (6) a. Dulles suspected everyone Angleton did.
- b. ?Dulles suspected Philby, who Angleton did as well.
- (7) a. Dulles stood near everyone Angleton did.
- b. *Dulles stood near Philby, who Angleton did as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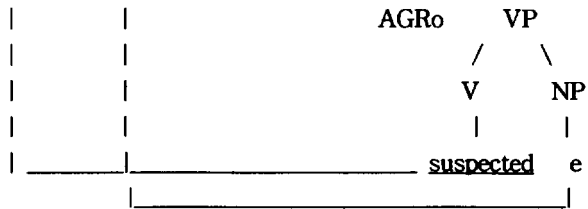
Lasnik은 논리형태부에서는 자질의 이동만이 허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Chomsky (1995)), 목적어의 격점검이 가시통사부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무한순환의 해소는 이 논항이동이나 외치 어느 쪽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먼저 (6b)를 보면 관계절의 핵이 이름 (name)이면 그 수식절의 외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항이동의 가능성만이 허용되고 가시적 목적어 이동 후에 (6b')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6b'')은 이를 수형도로 보다 자세히 나타낸 것이다.

(6b') Dulles [*suspected* [_{AGRO} Philby who_j Angleton did [_{VP} suspect t_j]...]_i]
 [_{VP} suspected t_i]³⁾



b. ?Dulles suspected Philby, who Angleton did as well.

3. (6b')와 (6b'')에서 밑줄친 **suspected**는 가시통사부에서 이동한 주절동사 *suspected*의 복사 (copy)를 나타낸다.



Lasnik은 삭제 분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저에서 수식절인 *who Angleton suspected as well* 생략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이 때 표면에서 동사가 목적어구를 선행하므로 올바른 어순을 위해서는 (6b")에 보듯 목적어와 더불어 동사도 가시적 이동을 겪어야 한다. 이 경우 동사구의 동일성은 종속절 동사구 내에 남아 있는 동사와 주절 동사구 내의 동사의 복사가 같이 취급된다는 가정 하에 성립이 되며 음성형태부에서 종속절 동사구가 삭제되면 목표 문장인 *Dulles suspected Philby, who Angleton did as well*이 생성된다. Lasnik은 (6b)의 문법성이 완전치 않은 것을 동사에 있는 강자질이 점점되지 않은 채로 논리형태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보다 자세히 논의하자면, 동사는 강 의미역 자질 (strong θ -feature)을 지니고 있어서 위쪽의 경동사 *v*로 이동함으로써 이 자질을 점점 받게 되는데 선내생 구문에서는 (6b")에서 보듯 수식절의 동사가 이동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된다. 동사내의 미점점 강자질은 음성형태부에서는 동사 자체가 삭제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논리형태부에서는 그대로 남게 되어 약한 파탄(crash)을 일으키기 때문에 (6b)처럼 약한 비문법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⁴⁾

이제 (6a)를 보면 (6b)와 달리 관계절의 핵이 양화사이므로 수식절의 위치가 가능하며 수식절이 위치를 통해 *vP*에 부가되면 아래 (6a')의 구조를 지니게 된다.

$$(6a') \quad [_{IP} \text{Dulles} [_{vP} [_{vP} \text{suspected} [_{AGROp} \text{everyone} [_{VP} \text{tv} \text{t}_{NP}]]]]] \\ [_{CP} \text{Angleton} [_{vP} \text{suspected} [_{AGROp} \text{everyone} [_{VP} \text{tv} \text{t}_{NP}]]]]]$$

이 구조에서는 이미 주절과 종속절에서 동사와 목적어 모두 관련된 자질

4. 결과적으로 Lasnik은 비제한적 관계절이 관련된 선내생 구문은 유사공백화(Pseudogapping)와 같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논의는 Lasnik (1996,1999)을 참고할 것.

점검을 위해 이동을 겪었고 동사구(VP)위의 경동사구(vP)까지도 동일성 조건하에서 삭제될 수가 있다. 미점검 자질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출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바로 (6a)가 정문인 이유가 된다. 이러한 이론 하에서 (7a,b)도 적절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7a)에서는 *everyone Angleton did*가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논항이동을 겪을 수는 없지만 수식절의 외치가 가능하고 (6a)에서와 같은 이유로 (7a)는 정문이 된다. 반면에 (7b)에서는 *Philby*가 목적어가 아니어서 논항이동을 겪을 수 없고 또 양화사가 아닌 관계로 외치도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영 동사구가 주절 동사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무한순환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된다. 이처럼 외치와 논항이동을 동시에 가정하는 통합적 분석은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에서 보이는 대조를 잘 설명해 준다.

다음 절에서는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선내생 구문에 부정대극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해 보겠다.

3. 부정대극표현을 내포하는 선내생 구문

3.1 Agbayani (1996)

Agbayani (1996)은 부정대극표현을 포함하는 선내생 구문을 다루면서 이것이 양화사인상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을 편다.⁵⁾ 그는 먼저 Uribe-Etxebarria (1994) 등의 주장을 따라 부정대극표현이 논리형태부에서 부정어나 그 밖의 적절한 인가자에 의해 성분통어(c-command)됨으로써 인가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문장들을 보도록 하자.⁶⁾

5.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부정대극표현이란 부정이나, 조건, 의문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표현들을 칭한다. 가장 대표적인 부정대극표현으로는 *any*를 들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은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 평서문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

- (i) a. John didn't criticize anyone.
- b. Did John criticize anyone?
- c. If John criticizes anyone, everyone will.
- d. *John criticized anyone.

6. Agbayani는 (7-9b)의 예들을 완벽하다고 여기지 않는 모국어 사용자들이 있음을

- (7) a. ?*Chris didn't play a sonata that any violinists in the orchestra did.
 b. Chris didn't play a sonata that any violinists in the orchestra played.
- (8) a. ?*Robin doesn't attend conferences that any linguists do.
 b. Robin doesn't attend conferences that any linguists attend.
- (9) a. ?*Pat didn't review three articles that any linguists did.
 b. Pat didn't review three articles that any linguists reviewed.

(7-9a)에서 보듯 부정대극표현이 선내생 구문의 관계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문장은 비문법적이 된다. 반면에 (7-9b)에서처럼 관계절 안에 영 동사구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법성이 훨씬 나아진다고 한다. Agbayani는 이 현상이 논항이동 분석 하에서는 설명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7-9a)에서 Hornstein의 주장대로 수식절을 포함하는 명사구가 논리형태부에서 일치소 구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면 이 예들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다음의 구조를 보자.

(7a') [IP Chris didn't [AGROP [NP a sonata that any violinists in the orchestra did [VP e]] [VP play t]]]

이 구조에서는 Agbayani가 주장하듯 실제로 영 동사구가 복사영역 바깥으로 이동해 나갔기 때문에 무한순환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부정대극표현도 부정어에 의해 성분통어되어 적절히 인가되므로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7a)와 (7b)에는 아무런 문법성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는 위에서 이미 보았듯이 잘못된 예측이다.

Agbayani에 의하면 논항이동 분석이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양화사 분석은 위 문장들의 문법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한다. 그 출발점으로서 그는 Fiengo & May (1994)를 인용하면서 무한순환의 문제는 영 동사구를 포함한 전체 양화사구가 IP에 부가되는 경우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기본적으로 양화사는 양화사 인상을 통해 동사구나 IP 어디에든 부가될 수 있으나 (May (1985) 등) Fiengo & May와 Agbayani는 선내생 구문의 경우에는 전체 양화사구가 동사구에 부가되는

인정하지만 그들도 각 (a)와 (b) 예들 사이에 분명한 대조가 있음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뒤에서 우리는 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언어 직관을 증시하는 분석을 전개할 것이다.

것이 적절한 복사영역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Agbayani의 분석에 있어 필수적인 가정이다.⁷⁾ 이 주장이 옳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는 왜 (7-9)에서 (a)의 예들과 (b)의 예들에 문법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무한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 동사구를 내포하는 전체 양화사구가 IP에 부가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 부정대극표현이 적절히 인가를 받지 못해 비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의 구조들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 (11) a. [_{IP} [*A sonata that any violinists in the orchestra did* [_{VP} e]]
 [_{IP} Chris didn't [_{VP} play t]]]
 b. [_{IP} Chris didn't [_{VP} [*A sonata that any violinists in the*
 orchestra did [_{VP} e]] [_{VP} play t]]]

양화사구가 IP에 부가되는 (11a)의 구조에서는 부정대극표현의 인가에 문제가 생기고 동사구에 부가되는 (11b)의 경우에는 상위 동사구가 복사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한순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7-9)의 (b)예문들의 경우에는 무한순환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사구에 양화사구가 부가되어도 상관이 없고 이 경우 부정대극표현도 부정어에 의해 성분통어되므로 도출이 합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분석은 Agbayani가 보고하고 있는 이들 문장의 문법성과 잘 조화를 이룬다. 이런 논의를 토대로 보면 부정대극표현을 내포하는 선행생 구문은 논항이동 분석보다 양화사이동 분석을 지지하는 듯이 보이나 우리는 다음 절에서 그 반대의 결과를 지시해 주는 부정대극 선행생 구문을 보게 될 것이다.

3.2. Merchant (1998)

Merchant (1998)도 Agbayani와 마찬가지로 부정대극표현을 내포하는 선행생 구문을 다루면서 양화사인상 분석이 어떻게 이를 설명할 것인지론 논

7 실상 Fiengo & May (1994)에서는 동사구에 부가되는 경우에 무한 순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가정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의 선행생 구문 분석을 본문의 자료에 확대적용하자면 이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듯하다.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그가 다루는 예문들에서는 부정대극표현이 관계절의 수식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핵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 제시된 예문들을 보도록 하자.

- (12) a. That boy won't do a damn thing I ask him to.
 b. Abby doesn't have to read anything we did when we were young.
 c. Ben rarely grants an interview to a single reporter who wants him to.
 d. Jack wasn't able to get an interview with a single person you were.
 e. The suspect didn't answer a single question he was required to.

위의 예문들은 모두 정문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Merchant는 양화사 인상이 동사구에 부가되더라도 무한순환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Merchant도 Agbayani와 마찬가지로 Uribe-Etxebarria (1994) 등을 따라 부정대극표현이 논리형태부에서 적절한 인가자에 의해 성분통어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는데 만일 양화사가 동사구에 부가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위 문장들의 문법성을 설명할 길이 없어지게 된다. 보다 자세한 논의의 위해 (12a)를 예로 들어보자. 아래 (13a)는 논리형태부에서 (12a)의 양화사구 *a damn thing I ask him to*가 IP에 부가되는 구조를, 그리고 (13b)는 동사구에 부가되는 구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 (13) a. [_{IP} [_{QP} *a damn thing I ask him to*] [_{VP} *e*]] [_{IP} that boy will not [_{VP} do t]]]
 b. [_{IP} that boy will not [_{VP1} [_{QP} *a damn thing I ask him to*] [_{VP} *e*]] [_{VP2} do t]]]

(13a)에서는 무한순환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부정대극표현이 부정어의 성분통어영역 바깥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가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남은 구조는 동사구에 전체 양화사구가 부가된 (13b)인데 이 경우에 부정대극표현은 부정어에 의해 성분통어가 되므로 문제가 없다. 남은 문제는 무한순환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Merchant는 (12)의 예문들의 완벽한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사구에 부가되는 경우에도 아래

쪽 동사구 (=VP2)가 복사영역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Agbayani는 Fiengo & May의 제안을 강화시켜 선내생의 경우에는 양화사가 IP에 부가될 때에만 무한순환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반면에 Merchant는 양화사가 동사구에 부가될 때에도 무한순환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서 두 분석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러한 주장들은 주어진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양화사인상 분석을 통해 이 두 종류의 자료를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명관 (1998)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이 상반된 종류의 자료를 양화사인상 분석이 동시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박 명관의 분석을 살펴보겠다.

3.3. 박 명관 (1998)

앞 절에서 밝혔듯이 박 명관 (1998)은 부정대극표현이 관계된 선내생 구문에 대한 Agbayani의 분석과 Merchant의 분석이 상치됨을 인지하고 양화사인상 분석 대신에 Lasnik의 통합적 분석을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먼저 Agbayani의 자료에 대한 그의 분석을 보도록 하자.

- (7) a. ?*Chris didn't play a sonata that any violinists in the orchestra did.
b. Chris didn't play a sonata that any violinists in the orchestra played.
- (8) a. ?*Robin doesn't attend conferences that any linguists do.
b. Robin doesn't attend conferences that any linguists attend.
- (9) a. ?*Pat didn't review three articles that any linguists did.
b. Pat didn't review three articles that any linguists reviewed.

박 명관의 주 관심은 외치 현상을 통해서 (7-9a)의 예들을 오히려 도출할 수 없음을 보이는 일이었다. 한 예로 (7a)를 들어보면, 만일 양화사 *a sonata*를 수식하는 [*CP that any violinists in the orchestra did [VP play t]*]가 외치되어 동사구에 부가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두 개의 동사구 중 아래 쪽 동사구에 의거해서 삭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 (7a)는 정문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7a)는 정문이 아니므로 이 도출을 방지하기 위해 박 명관은 Fiengo & May나 Agbayani의 분석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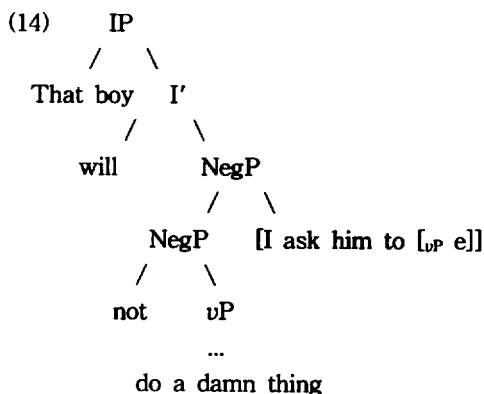
외치된 수식절이 동사구에 부가되었을 때에는 아래 쪽 동사구를 기준으로 생략이 일어날 수 없고 반드시 위쪽 동사구를 기준으로 생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⁸⁾ 이 가정을 받아들이면 동사구 부가는 적어도 선내생 구문에서는 무한 순환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보다 상위의 범주로 외치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 경우 외치된 절이 부정어가 차지하는 위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 결과 부정대극표현이 적절히 인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이 나빠진다고 박 명관은 주장한다. 반면에 (7b)의 경우와 같이 생략된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복사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외치된 구가 동사구(정확히 말하면 경동사구)에 부가되는 것이 허가된다. 이 때 그 절 속에 내포된 부정대극표현이 부정어에 의해 성분통어되므로 이 문장이 문법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박 명관은 주장한다.

아래에 반복되는 Merchant의 예에 대해서도 박 명관은 외치 분석을 통한 설명을 시도하는데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2) a. That boy won't do a damn thing I ask him to.
 b. Abby doesn't have to read anything we did when we were young.
 c. Ben rarely grants an interview to a single reporter who wants him to.
 d. Jack wasn't able to get an interview with a single person you were.
 e. he suspect didn't answer a single question he was required to.

이 예문들의 도출에 있어 수식어절이 아래 (14)에서 보듯 동사구보다 위에 위치한 범주(예를 들면 부정어구나 IP)에 부가되면 무한순환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부정대극표현이 제대로 인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14)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관계절의 핵인 부정대극표현은 이동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어에 의해 성분통어되고 따라서 이 문장의 완벽한 문법성을 잘 예측해 준다.

8. 박 명관은 이를 일종의 A-over-A Constraint로 설명한다. 자세한 것은 박 명관(1998)을 참고할 것.



이상에서 우리는 선내생 구문에 부정대극표현이 내포된 경우에 어떻게 무한순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 두 분석에서 간과되었던 문제점들을 논하고 이 두 분석 중 어느 것도 완벽한 설명을 할 수 없음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부정대극표현의 인가에 대해 다른 입장이 있음을 보이고 이 입장에 근거하면 위에 문제가 된 자료들에 대해 복합적 분석을 토대로 한 설명이 가능함을 보일 것이다.

4. 이전 분석들의 문제점

4.1. 동사구 부가와 선내생 구문: 양화사인상 분석의 문제

앞서 우리는 부정대극표현을 내포하는 선내생 구문에서 동사구 부가의 허용과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하는 언어자료들이 있음을 보았다. 즉, Agbayani의 예들은 양화사 인상이 동사구 부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리고 Merchant의 예들은 반대로 동사구 부가가 허용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어서 선내생 구문에 대한 양화사인상 분석에 대해 거의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더해 양화사를 핵으로 하는 관계절에 생략이 일어날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양화사 *every*는 목적이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양화사와 달리 부정어에 대해 광의미영역(wide scope)을 지니지 못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 (15) a. John didn't criticize every student (not > every)
 b. John didn't criticize many of the students (ambiguous)

목적어 자리에 *many*가 나타날 때에는 (15b)에서 보듯 부정어와 *many*사이
 에 중의성이 존재하지만 *every*가 나타날 때에는 항상 부정어가 *every*에 대
 해 광의미영역을 지닌다.⁹⁾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 (16) John didn't criticise every student that Bill did.
 '=John criticized some of the students that Bill criticized.'
 '*John criticized none of the students that Bill criticized.'

이 선내생 예문은 정문인데 해석에서 볼 수 있듯 이 경우에도 부정어가
*every*에 대해 광의미영역을 취한다. 이것이 양화사인상 분석에 시사하는
 바는 *every student that Bill did*가 부정어가 차지하는 위치보다 낮은 위
 치에 부가되어 의미영역을 가지고 그것이 무한 순환을 극복케 해 준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Merchant에서와 같이 동사구 부가 (혹은 적어도 부정어
 보다 낮은 어떤 자리에서의 부가)를 허용해야 함을 보이는 또 다른 경우를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왜 한 쪽에서는 동사구 부가를 허락해서는 안
 되고 다른 쪽에서는 허락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양화사인상 분석
 에 더욱 더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고 이를 대답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2. 박 명관의 문제

앞 절에서 우리는 부정대극 선내생 구문을 양화사 인상을 통해 분석하려
 는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박명관의 비판이 적절함을 확인했다. 또한 그의
 위치 설명이 어떻게 두 부류의 자료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지도 살펴보
 았다. 그러나 박 명관의 분석이 Lasnik의 복합적 분석을 따르고 있는 것이
 라면 그의 분석에는 반드시 고려하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가능성이 제외
 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Lasnik에 따르면 어떤 문장에서
 무한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문법적 운용은 위치 이

9. 지금까지의 문헌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듯 한데 그
 원인이 무엇으로 판명되든 본문의 논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외에도 논항이동이 있는데 박 명관의 논의에서는 관련된 자료에 대해 논항이동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앞서의 Agbayani의 예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 (7) a. ?*Chris didn't play a sonata that any violinists in the orchestra did.
 b. Chris didn't play a sonata that any violinists in the orchestra played.
- (8) a. ?*Robin doesn't attend conferences that any linguists do.
 b. Robin doesn't attend conferences that any linguists attend.
- (9) a. ?*Pat didn't review three articles that any linguists did.
 b. Pat didn't review three articles that any linguists reviewed.

박 명관은 위 예들에 대해 Agbayani가 제시한 문법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Lasnik의 복합적 분석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논항이동 분석에 대한 Agbayani의 비판은 이 경우 박 명관의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비록 외치에 의해서는 (7-9a)의 예들을 생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논항이동을 통해서 이 문장들을 생성할 수 있다면 이는 복합적 분석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문장의 생성과 관련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도출의 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며 실제 문장을 보고 우리가 감지하는 문법성은 이 여러 도출 중 최상의 것, 즉 이 경우에는 바로 논항이동을 통한 도출에서 결과되는 문법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7-9a)의 예들은 (6b)와 같은 정도, 즉 약간의 비문법성을 띠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실제 이 예들이 지닌 문법성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따라서 박 명관의 분석(또는 그 모체인 Lasnik의 분석)도 양화사인상 분석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료를 완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우리는 다다른다.

5. 제안: 통합적 분석

위에서 우리는 박 명관에 의해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양화사 인상 분석이 두 종류의 부정대급 선내생 구문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고, 또한 박 명관의 분석도 Merchant의 자료를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Agbayani의 자료는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절에서는 문제가 되는 자료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접근해 봄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Agbayani는 부정대극 선내생 구문을 다루면서 동사구가 생략된 구문과 생략되지 않은 구문 사이의 대조에 주목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의 말처럼 (7-9a)의 예들과 (7-9b)의 예문들 사이에는 분명히 문법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수식어절에 부정대극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구문과 (7-9b)의 예문들 사이에도 대조를 느끼는 모국어 사용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Agbayani도 각주에 (7-9b)의 예문들을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모국어 사용자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바로 이 점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즉 (17-19a)로 다시 제시된 (7-9b)의 예문들과 그에 대한 최소대립 예문들인 (17-19b) 사이에도 대조가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 (17) a.?(?)Chris didn't play a sonata that any violinists in the orchestra played.
 b. Chris didn't play a sonata that the violinists in the orchestra played
- (18) a.?(?)Robin doesn't attend conferences that any linguists attend.
 b. Robin doesn't attend conferences that the linguists attend.
- (19) a.?(?)Pat didn't review three articles that any linguists reviewed.
 b. Pat didn't review three articles that the linguists reviewed.

위에 주어진 문법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 이러한 세 등급의 문법성이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것일 것이다. 양화사 인상 분석은 앞서 Agbayani와 Merchant의 자료들의 차이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거나와 이러한 세 등급의 문법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할 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앞서 Agbayani의 예들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던 Lasnik의 분석은 전체 자료의 성격이 분명해진 지금은 다시금 긍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게 된다. 먼저 왜 (17-19a)의 예들이 문법적으로 완전하지 못한가 하는 것에서

10) Agbayani에 의해 보고된 것처럼 주어진 각 (a)의 예문들이 문법적으로 완벽하다고 느끼는 모국어 사용자들이 존재한다. 즉 이들은 (a)와 (b) 예문들의 문법성에 대해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본 논문이 이러한 직관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미래의 연구에서 이것을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논의를 시작해 보자.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이 예들의 비문법성이 부정대극표현의 인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Agbayani와 Merchant는 논리형태부에서의 성분통어를 부정대극표현의 인가조건으로 받아들였으나 성분통어가 아니라 지정어-핵 관계에 의한 일치(또는 자질점짐)가 인가조건이라는 입장도 또한 존재한다 (Ohasi (1993), Kawashima & Kitahara (1992) 등). 이는 부정대극표현과 그 인가자 사이에 섬이 있으면 문법성이 저하된다는 관찰에 근거한 제안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도록 하자.¹¹⁾

- (20) a. ??John didn't regret that anyone came.
 b. ?*I didn't believe the claim that she would eat anything for lunch.
 c. ?*John doesn't know when any student left.

이 예문들은 각각 사실동사구문, 복합명사구문, 간접의문구문 등을 담고 있으며 부정어와 *any* 사이에 섬이 가로막고 있다. 단순히 성분통어가 부정대극표현 *any*의 인가조건이라면 이 문장들의 문법성에 대해 또 다른 설명을 도입하여야 하나 만일 논리형태부에서 지정어-핵 일치에 의한 자질점짐을 통해 인가가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위 예문들의 문법성이 잘 설명된다.

위의 사실을 토대로 부정대극표현은 논리형태부에서 인가자와 지정어-핵 일치 또는 자질점짐을 통해 인가된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 하에서는 앞서의 (17-19a)와 (17-19b) 사이의 대조와 (7-9a)와 (17-19a) 사이의 대조에 대해 일관성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7-19b)가 문법적으로 완전함은 당연한 일이고 (17-19a)의 문법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논리형태부에서 부정대극표현이 부정어와의 점짐을 위해 이동을 할 시에 관계점짐(relative island)을 건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7-19a)와 (7-9a) 사이의 대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자. Lasnik의 복합적 분석에 의하면 (7-9a)의 예문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도출은 두 가지이다. 즉, 전체 목적어구가 논항이동을 겪는 도출과 목적어구 중 수식절은 외치를 겪고 핵만 논항이동을 겪는 도출이 바로 그것들이다. 만일 후자의 경우인 외치를 통해 동사구에 수식절이 부가되고 이를 통해 무한순환이 극복될 수 있다면 Agbayani에 의해 관찰된 대조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수식어절이

11) 이 예문들의 비문법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동사구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A-over-A 제약에 의해 적절한 생략 영역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박 명관 (1998)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수식어절이 우향이동, 즉 외치를 겪어서 동사구에 추가되면 우향이동된 요소가 있을 시 그 내부의 어떤 것도 이 요소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소위 고정효과(freezing effects)에 기대어 설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Johnson (1985)). 이 두 가능성 중 하나가 옳바르다고 가정을 하면 외치를 통한 합법적인 도출은 없게 된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목적어가 논향이동을 겪는 도출이다. 이 경우에는 동사의 강한 의미역 자질이 점검되지 않은 채로 논리형태부로 넘어가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비문법성이 예견되며 이 위에 부정대극표현이 부정어와의 점검을 위해 이동할 때 관계절을 넘어갈 시의 효과가 더해져서 (7-9a)의 비문법성이 결과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복합적 분석을 유지하는 것은 몇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양화사인상 분석에서 설명될 수 없었던 (21)의 대조에 대한 Lasnik의 분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 (21) a. ?Dulles suspected Philby, who Angleton did as well.
 b. *Dulles stood near Philby, who Angleton did as well.

즉, (21a)는 외치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논향이동을 통해 무한 순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약간의 비문법성만 나타나는 것이고 (21b)는 비제한적 관계절이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치뿐 아니라 논향이동도 허락되지 않아 무한순환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비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대극 선내생 구문과 제한적/비제한적 관계절에서의 선내생 구문을 놓고 볼 때 양화사인상 분석보다는 통합적 분석이 유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부정대극표현을 내포하는 선내생 구문을 증점적으로 살펴 보았고 이 구문이 적어도 양화사인상 분석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합적 분석이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했다.¹²⁾ 이 분석의 토대로 우리는 부정대극표현이 성분통어가 아니라 점검을 통해 인가된다는 입장을 따랐는데 본 분석의 성패는 이 입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참고문헌

- Agbayani, B. 1996. "On the Interaction of ACD and NPI Licensing: Theoretical Implications," in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Irvine, CA: Univ. of California, Irvine.
- Baltin, M. 1987. "Do Antecedent Contained Deletions Exist?" *Linguistic Inquiry* 18: 579-595.
- Fiengo, R. & R. May. 1994. *Indices and Identity*,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 Fox, D. 1995. "Condition C Effects in ACD,"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7.
- Hornstein, N. 1994. "An Argument for Minimalism: The Case of Antecedent-Contained Deletion," *Linguistic Inquiry* 25.3.
- Johnson, K. 1985. *A Case for Movement*, PhD dissertation, Cambridge, Mass., MIT.
- Kennedy, C. 1997. "Antecedent Contained Deletion and the Syntax of Quantification," *Linguistic Inquiry* 28.
- Kawashima, R. & H. Kitahara. 1992. "Licensing of Negative Polarity Items and Checking Theory: A Comparative Study of English and Japanese," in *Proceedings of FLSM* 3.
- Larson, R. & R. May 1990. "Antecedent Containment or Vacuous Movement:

12. 실상 양화사인상 분석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문들은 이 밖에도 Kennedy (1997), Fox (1995), Sauerland (1998) 등 다수가 존재하며 이들이 다루는 자료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논의도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화사인상 분석이든 외치와 논항이동을 결합한 Lasnik식의 복합적 분석이든 하나의 분석이 논의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설명한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듯 하다. 필자의 단견이긴 하지만 어쩌면 양화사 인상과 이 복합적 분석에서 고려되는 문법적 운용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 하다.

13. 실상 관련된 인가조건은 성분론어이고 부정대극표현이 섬 속에서 좋지 못했던 경우들은 대부분 한정성 효과 (definiteness effects)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설명 방식이 섬 속의 부정대극표현들의 비문법성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시 된다.

- Reply to Baltin," *Linguistic Inquiry* 21:103-122.
- Lasnik, H. 1993. "Lectures on Minimalist Syntax," *UCon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I*, distributed by MITWPL.
- Lasnik, H. 1995. "A Note on Pseudo-gapping,"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7.
- Lasnik, H. 1999. "Last Resort," in *Minimalist Analysis*, Blackwell.
- Lee, R. -H. -K. 1994. *Economy of Representation*, PhD dissertation, UConn.
- Merchant, J. 1998. "ACD in NPIs," A paper presented at Taalkunde in Netherland (TIN)-Dag, Utrecht, Jan. 1998.
- Ohasi, H. 1993. "A New Approach to Negative Polarity Licensing: The Case of English *Any*," i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Vol. 3*.
- Park, M. -K. 1998. "The ACD and NPI Interaction: Towards an Extraposition Analysis of ACD, i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Vol. 8.2*, Hankuk Publishing Co.
- Sauerland, U. 1998. *The Meaning of Chains*, PhD dissertation, MIT.
- Uribe-Etxebarria, M. 1994. *Interface Licensing Conditions on Negative Polarity Items: A Theory of Polarity and Tense Interactions*, PhD dissertation, UConn.
- Wyngaerd, G. -V. & J. -W. Zwart. 1991. "Reconstruction and Vehicle Change," in *Linguistics in Netherlands*.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E-mail: kwsohn@chollian.com